# 하늘의 소리 들으던 시절이 있었다

## '치미(鴟尾), 하늘의 소리를 듣다'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9.18~12.2
백제 · 신라 치미 한 자리에
분황사 치미 첫 실물 공개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개최 10.19


왕흥사지 치미1


왕흥사지 치미2


미륵사지 치미


부소산 절터 치미


황룡사지 치미


분황사 치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치미(鴟尾)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은 부여군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함께 9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특별전 '치미, 하늘의 소리를 듣다'를 개최한다.

치미는 사찰과 궁궐 등 우리 전통 목조건축의 지붕 용마루 양 끝을 장식하는 망새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건축물의 위엄을 높이기 위한 장식의 의미와 함께 길상(吉祥)과 벽사(辟邪)를 위한 주술적 의미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의 옛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망새는 치미를 비롯하여 용두, 용미, 치문 등 나라와 시대별로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를 띠고 있다. '솔개의 꼬리'라는 뜻의 치미는 백제와 신라 등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망새다. 여러 형상 중 새(鳥)의 형상을 빌린 것은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는 새를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지상의 뜻을 하늘에 전해 길상과 벽사를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길상이나 벽사를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치미의 조명이라는 점에서 전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현존하는 치미 중 가장 오래된 부여 왕흥사지 치미(6세기 후반 제작)의 복원을 계기로 치미를 통해 백제의 문화와 동시대의 삼국 문화 등 우리 문화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완전한 모양의 백제시대 치미를 비롯하여 신라 시대 치미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14점의 치미와 관련 유물 28점 등 총 42점이 전시되는데, 2013~2014년 발굴되고 복원작업을 거쳐 2016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전시됐던 부여 왕흥사지 치미를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치미, 부여 금강사지 치미, 부여 부소산 절터 치미 등 백제 치미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황룡사'를 통해 선보인 바 있는 높이 182cm, 너비 105cm의 우리나라 현존 최대 치미인 경주 황룡사지 치미, 경주 분황사지 치미, 경주 인왕동 절터 치미 등 신라의 치미가 함께 전시된다. 이 중 경주 분황사 치미는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되는 것이며, 최근 들어 복원된 후삼국시대 원주 법천사지 치미도 선보이는 자리여서 기대감을 더한다.

치미는 주로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용마루에 얹을 수 있도록 하단부 중앙에 적새와 연결하는 반원형 또는 방형의 홈이 가로로 패어 있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백제의 치미는 부여 천도 이후 많은 수량이 제작되고 유행했으며,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왕흥사지 치미는 신라 황룡사지 치미와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 치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의 치미는 4~5세기경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궁궐의 건물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 있고, 평양 부근의 절터나 궁궐에서 조금씩 출토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신라의 치미는 황룡사지 치미가 대표적으로, 양 측면과 뒷면에 손으로 빚은 연꽃과 사람 얼굴의 무늬가 번갈아 보이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특별전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한층 고조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리는 '백제문화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특별전과 함께 10월 19일에 '동아시아의 치미'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사비마루에서 개최한다.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치미연구를 비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3회 천태예술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

### 서울 KBS홀 9월 15일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KBS홀에서 제13회 천태예술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개최한다. 문화와 예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천태종이 지난 1991년 처음 시작한 천태예술제는 지난 20여 년간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에서 총 12회의 무대를 열었다. 이번 제13회 천태예술제는 새롭게 창작 된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총 29곡(서곡포함)중 우선 11곡을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이라는 주제 아래 연주한다.

작곡가 조원행의 총지휘 아래 전국 천태연합합창단 800여 명이 마하연 실내국악단과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반주에 맞춰 법화광명의 노래 가운데 11곡을 부르게 된다. 이번 천태예술제는 과거 영취산에서 펼쳐진 영상회상이 이 땅에 다시 현대인의 근기에 맞춰 문화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장엄한 영상회상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태종은 2019년 하반기에 총본산 구인사에서 '법화광명의 노래' 29곡 전곡을 공연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 오백나한상 사이를 거닐며 나를 찾는다

## '창령사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8월 28일~11월 25일


'창령사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 1부 전시장 모습.

오백나한을 나한전이나 응진전이 아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8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8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개최한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체에 휴식과 힐링,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해 박물관 브랜드 유물로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선정하고, 2018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2002년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에서 발굴된 300여 위의 오백나한 중 18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전시 감상과 정보 영역을 분리했다. 감상을 위한 영역에서는 현대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창령사 나한상의 성격을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전시 영역과 체험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 공간설계와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긴밀하게 조정함으로써 전시 공간 내에서 토크 프로그램과 명상, 요가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성상(聖像)임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웃고 사랑하고 슬퍼하며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백나한의 얼굴에 집중하여 설치미술가 김승영 작가와 공간을 설계하고, 오윤석 작가와 사운드 작품을 더했다. 김승영 작가는 수천 장의 벽돌을 이용한 설치작품 'Are you free from yourself?'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서로 한 데 어우러져 호흡하는 숲과 같은 공간을 마련했다. 숲 속에 고요히 좌정한 나한상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때론 입가에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때론 깊은 사색을 끌어내기도 하는 나한상의 신묘한 힘을 느껴보도록 했다. 오백나한상을 하나하나 만나며 숲을 거닐고 자신과 닮은 나한상을 찾아보는 것도 이 전시의 묘미이다.

2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나한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성과를 펼쳐놓았다. 창령사 오백나한상의 미술사적 의의, 복식, 석재, 산지, 보존과 복원 과정, 훼불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학문적 융합과 그것을 통해 이뤄낸 컨텐츠를 전시로 구현했다.

3부에서는 나한상을 주제로 창작해온 지역 작가들과 함께 현대 삶 속의 나한의 의미를 찾아본다. 홍석창, 최영식, 이형재, 최중갑 작가는 강원의 정체성에 대한 오랜 물음을 작품을 통해 구현했다. 특별전 개막과 함께 도록의 기능을 겸한 조사연구보고서를 간행했다. 불교철학, 불교미술, 복식사, 지질학, 미학, 보존과학 등 10명의 전문가들이 창령사 오백나한상에 대한 다채로운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 향후 나한상의 전시와 활용 등에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공개 강연 2회, 전시실 토크 프로그램 2회, 요가를 겸한 명상 프로그램 3회 등 국립춘천박물관의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도 모두 이번 특별전의 주제와 연동되도록 했다. 박재완 기자

## 도일 스님 선서화도예전

### 9.19~10.2 갤러리 라메르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깨달음의 향기가 깃든 도일 스님 선서화도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석굴암 중창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마음과 70여 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발원하는 마음이 담겼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새롭게 장엄하여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불사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여 장차 평화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기를 발원하는 전시이다.

도일 스님은 "12년 만에 마련한 전시를 기회로 석굴암을 천년고찰이란 명성에 부합하는 수행처이자 기도도량으로 조성한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미얀마 7일 (특급호텔)
1팀 2018년 11월 10일 229만원
2팀 2018년 12월 10일 239만원
3팀 2019년 01월 10일 249만원


스리랑카 8일,
스리랑카&몰디브 10일
스리랑카 8일 2018년 12월 10일 239만원
스리랑카 8일 2019년 01월 09일 259만원
순례 및 몰디브 2019년 01월 09일 39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7대성지 11일 2018년 11월 11일 249만원
7대성지 10일 2019년 01월 10일 249만원

▶ 비자비용, 기사/가이드팁 포함 ▶ No옵션, No쇼핑 ▶ 특급호텔 사용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확정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02-720-9600
홈페이지 maumtour.com